

정승우

재단법인 유중재단
이사장

DETAIL
↑
실크 홀로넬 스웨터, 베이지 슬랙스, 클로시 브라운 스니커즈 모두 타임웅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리고 아픈 기억이 많다. 실패와 거절, 낙방 등 여러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만 굳이 꺼내고 싶지 않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짐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삶에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면?

어머니. 항상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인자한 분이다. 예의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용히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 지금도 고민이 있으면 어머니와 상의한다. 공익사업을 시작한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다.

컬렉팅한 아트 피스 중 가장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

모두 소중하지만 굳이 꼽자면 제니 홀저의 '생존 시리즈' 중 하나인 마블 벤치 <Survival:

When there is no safe place...>. 홀저는 1986년부터 대리석이나 화강암으로 만든 벤치, 석관에 마치 묘비명처럼 글귀를 새겨 넣는 공공 미술을 소개했는데 이 작품이 그중 하나다. "안전한 잠자리가 없으면 낮엔 종일 건느라 지치고 밤엔 몇 배나 위험해서 진이 빠진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노숙자가 여기 누워 자려다 이 문구를 읽는다면 얼마나 서늘할까. 또 그 상황은 얼마나 블랙코미디일까. 정말 매력적인 작가다. 굉장히 무거워서 어렵게 들어온 작품이기도 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노력, 성취, 가족.

요즘 당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건 무엇인가?

얼마 전 쌍둥이 아빠가 되었다. 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온몸으로 퍼진다.○